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보도시점 : 2025. 12. 19.(금) 06:00 이후 (12. 19.(금) 석간)/ 배포 : 2025. 12. 18.(목)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IT 등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로 8기 위원회 구성
-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공간 민주주의 실현 · 건축산업 선진화 · 규제혁신 적극 추진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 A)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그동안 **국가 건축정책 비전 ·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 · 조정**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 건축정책기본계획(1~3차) 심의·의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화,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기여

□ 이날 출범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25.9.10 취임) 및 민간 위촉위원(17명)과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 '12.19(금), 10:00~11:00 / 대한상공회의소/ 위원장·민간위원(17), 국토부 1차관 등

○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15명, 붙임2 참조)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용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건위 김진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Back to the Basics)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 · 좋은 도시 ·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붙 임 : 행사 사진(※ 행사종료 후 추가배포 예정)

담당 부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	책임자	과장	김희천 (02-397-5505)
		담당자	사무관	김 율 (02-397-5518)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책임자	과장	최아름 (044-201-3062)
		담당자	서기관	김수현 (044-201-40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OPEN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2025. 12. 19(금), 10:00~11: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지하 2층)

○ (참 석) 국건위 위원장 및 민간위원(17명), 국토부 1차관, 국건위 기획단, 건축분야 단체장 등 약 50명

□ 주요내용

○ 민간위원 위촉장 전수식, 민간위원 소개 및 인사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0:05 (5분)	· 개 회	
10:05 ~ 10:10 (5분)	· 참석자 소개	
10:10 ~ 10:15 (5분)	· 위원장 인사말씀	
10:15 ~ 10:20 (5분)	· 국토부 1차관 축사	
10:20 ~ 10:30 (10분)	· 건축분야 단체장 축사(각 3분)	건축분야 3단체장
10:30 ~ 10:50 (20분)	· 위촉장 전수 및 기념촬영	위원장 → 위원(15)
10:50 ~ 11:00 (10분)	· 폐회 및 전체 기념촬영	

붙임 2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가나다순으로 기재

성명	구분	성명	직위 및 이력	비고
1	위원장	김진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2	위원	강정훈	·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 ·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3		권경현	· 용산법률 대표변호사 · 진운공공투자연구센터장	
4		강미선	·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신규위촉
5		강미숙	· ㈜아디건축사사무소 대표 · 부산건축사회 회장	신규위촉
6		김미연	·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 · 청주대 스마트도시재생연구소장	신규위촉
7		김성혜	· 협성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장	신규위촉
8		김재철	·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 성남시 공공건축가	신규위촉
9		김준영	· 전주대 건축학과 교수 ·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신규위촉
10		김창성	· 협성대 건축공학과 교수 · 대한건축학회 건축교육혁신원장	신규위촉
11		박인수	·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서울시 공공건축가	신규위촉
12		박정호	·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신규위촉
13		소승영	·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14		안용운	· 디에스앤디(주) 대표이사 · 안양시 부동산자문위원	신규위촉
15		유광흠	·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16		유명희	·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건축가회장	신규위촉
17		이영은	·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부 도시재생 실무위원	신규위촉
18		홍경구	·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 성남시 총괄건축가	신규위촉
19		(공 석)		위촉 추진중

참고 1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애입니다.

오늘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위촉되신 민간위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함께해주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러 오신 건축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존재를 잘 모르시더라도
건축 혁신을 기대하시는 국민께 다짐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에 설립된 세계 유일의 대통령 소속 건축정책위원회로서,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시대를 거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8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세 차례 수립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설계분야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국민 안전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1,500여 명이 활동하는 '공공건축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건축공간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토교통부의 건축 분야 역할도 커졌고,
무엇보다 공공건축과 공간문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드높아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은 태산입니다.
우리는 혁명적 시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K-민주주의' 빛의 혁명을 거쳐 태어난 이재명 정부가
나라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시간에 발맞춰서,
우리는 도시·건축·공간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과 현장 실천의 혁신에 도전하면서
'**공간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건축혁명·공간혁명은 무척 새로운 도전입니다.
- '**신기술**'(스마트·AI·에너지·모빌리티·공법 등)은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 '**신수요**'(인구구조·지역 양극화·경제구조·기후변화·
  도시건축 변화)를 파악해야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립니다.
- '**신문화**'(다양화·세련화·글로벌화·진짜성·도시문화·
  공간문화·핵개인화 등)의 무한한 가능성에 착안해야
  시민 행복감을 높이고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 '**신산업**'(TQM, 디자인빌드 시스템, MMC, OSC 등)에
  걸맞은 구조혁신을 해야
  새 시대의 과제를 효능감 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의 시대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동안 부동산 거품과 허영에 도취되어 뒷전에 처졌던
'기본'을 바로 세우는
'Back to the Basic' 태도를 복원하겠습니다.
양적 성장과 급팽창 시대의 허울 좋은 외형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질적 성장·시스템 성장의 내공 마인드를 갖춰서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산업’과 **‘공간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음의 핵심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산업 선진화’**를 통한 중간 생태계 복원입니다.
건축 분야는 건설 시장의 70%가 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제도적 틀과 공공 투자는 그에 합당치 못합니다.
설계와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획부터 설계 생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된 시장을 극복하고
산업의 중간 생태계를 일으켜서
청년 세대 일자리와 미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둘째, **‘규제 리셋’**입니다.
80여 년 전 토목 시대, 근대 건축 시대에 만들어져
누더기처럼 고쳐오며 낙후된 제도로
새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도시 시대, 건축 시대에 맞춰
섬세하고 정교하고 진취적 혁신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겠습니다.
새로운 생산 시스템과 모빌리티 혁신,
도시적 삶과 1인 가구 중심의 수요에 맞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축·도시용도 기준, 주차장 및 주택 규제 등을 개선하고,
건축혁명을 체감할 수 있는 시범 사업과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마침,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딱 들어맞고,
지방자치 새 리더가 등장하는 시기와 딱 들어맞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원칙이나 방향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실현 아젠다를 설정해서
향후 5년 동안 실천적 로드맵으로 작동하여
건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간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민주주의 기본인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희망과 불만까지도 소화하겠습니다.
건축공간문화자산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서 보듯,
일상의 도시·건축·공간은 문화적 상상력의 촉매가 됩니다.
명품 랜드마크와 같은 허영을 버리고,
일상 속 좋은 건축과 공간, 좋은 도시를
아끼고 알리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
이것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 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 지방 소멸과 빈집 활용 대응,
콤팩트 개발, 통합 인증 도입 등
수많은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님들과
새 시대를 열어갈 임무를 수행할 기대에 벅차오릅니다.
새 시대의 바람을 불러일으킵시다.
현장에서 혁신을 실천해 냅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국민의 높은 기대,
전문가의 혁신 의지를 모두 지혜롭게 모아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취적으로 씨앗을 심어서 출범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 혁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진정한 건축 혁명으로 그 열매를 맺어서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립시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5.12.1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애

참고 2 **국토부 1차관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김이탁입니다.

김진애 위원장님을 비롯해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건축 분야 협·단체장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한 건축과 도시의 과제들은
어느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장을 다니다 보면,
건축과 도시의 문제는 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물 하나를 손보는 일에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변에 불편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 앞에서는
다양한 해법을 조화롭게 모아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8기 위원회에는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오신 경험과 문제의식이
위원회 논의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 온 핵심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과「환경」, 그리고 「쾌적한 생활공간」이라는
건축의 가장 '기본' 부터 다시 짚어가며,

국민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 위에서
AI가 이끄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건축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할을 부탁드리며,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